

植民地 都市 이미지와 文化現像

- 1920년대의 京城 -

全 遇 容

植民地 都市 이미지와 文化現像

- 1920년대의 京城 -

全 遇 容

I. 머리말	IV. 街路 環境
II. 민족별 거주지 분리와 南北村	V. 朝鮮人の 京城 認識
III. 새로운 건조물들	VI. 맺음말

I. 머리말

도시는 그 발생 당초부터 다양한 상징물의 집적체였다.¹⁾ 종교 권력이든 세속 권력이든 또는 자본주의적 物神 권력이든 공간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권력은 그 공간 위에 자신의 권위와 의지를 표현해 왔다. 도로의 너비와 방향,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신분이나 직업에 따른 주거 공간의 제한 등 도시의 공간구조를 규정하는 여러 요소들은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이 의도하는 상징성을 아울러 체현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 공간은 항상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²⁾ 물론 권력의 의도가 도시 공간 위에 그대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시는 권력보다 생명이 길다. 한 도시 위에는 각 시대의 권력이 작용한 여러 층위의 물리적 구조와 그 흔적이 중첩되게 마련이다. 새로운 권력은 대체로 도시 공간에서 기존 권력의 흔적을 지워버리고자 하지만, 공간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기는 어렵다. 또 도시 주민들이 권력의 의도대로 도시 공간을 인지하라는 법도 없다. 그들은 과거의 흔적에 대한 기억을 지닌 존재이며, 그에 입각해 관성적 행태를 유지하는 존재이다. 그에 따라 권력이 도시에 담고자 한 텍스트는 독자 [주민]에 의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독해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도시 공간은 권력의 의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전시장이라기보다는 “권력이 흔적을 남긴 사회 갈등과 정치 과정의 물리적 고

1) Lewis Mumford는 발생기의 도시는 신성하고 안전한 권력을 찬미하는 구체적 표현수단이었다고 하였다. Lewis Mumford, 金榮記(譯), 1990 《歷史 속의 都市》 明寶文化社, 26.

2) Henri LeFebvre, 1976 "Reflections on the politics of space", Antipode, vol.8 [앙리 르페브르, <공간정치에 대한 반성> 최병두·한지연(편역), 1989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한울에 번역전제], 234.

증물”이다.³⁾

도시 공간 자체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소산인 한, 어느 시점에서든 도시 전체, 또는 도시 내 특정 지구나 특정 건조물에 대해 도시 주민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Image’로 표현되는 바, 그 이미지는 가로망이나 건조물에 의해 도시 주민 일반의 動線과 視線이 규제됨으로써, 또는 도시 주민 다수가 특정한 장소에 대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공의 이미지 Public Image’가 된다.⁴⁾ 같은 맥락에서 짐멜은 도시에서는 視感覺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보았다.⁵⁾ 물론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意圖’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 주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권력의 의도와 맞대면하게 되며, 그에 대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순종이든 저항이든 나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개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들의 육중한 무게에 압도되어 권력의 의도를 수용하게 된다.

린치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① path(길·도로) ② edge(경계), ③ district(구역), ④ node(교차로, 장소), ⑤ landmark의 상호 전환가능 한 다섯 범주를 설정하였다.⁶⁾ 사람은 누구나 신성한 장소 - 불결한 장소 / 활기찬 거리 - 음습한 거리 / 웅장한 건물 - 초라한 건물 등을 구별하여 인지하고 있고 그 이미지는 대개 도시 주민 대다수에게 공유된다. 물론 도시 내의 특정한 계층, 또는 민족에게만 공유되는 이미지 요소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도시, 또는 도시 내 특정 장소나 건축물의 이미지는 계급의식이나 민족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그 같은 의식이 특정한 이미지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일부 집단에게는 때로 권력이 의도하는 ‘공공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이미지가 투영되기도 한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서울은 집권적 중세 국가의 수도로서 풍부한 이미지 요소 Imagability를 지닌 도시였다. 가로망의 배치, 가로의 너비, 주요 건물의 배치와 규격 등이 유교적 통치 이념과 풍수적 공간관에 입각하여 설계되거나 규제되었고 500년 이상을 수도로 존속하는 과정에서 숏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집단적 기억의 장소도 도처에 산재해 있었다. 개항 이후, 특히 1894년 이후 도시 서울에 새로운 이미지 요소들이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외국공원, 교회, 신식 학교 등 서구적 건축물이 출현하였고, 전차·기차 등 새로운 교통시설이 등장하였으며, 원구단, 독립문, 장충단, 기념비전 등 정치적 상징성을 강하게 지닌 건조물도 새로 건립되었다. 이미 1910년 이전부터 도시 경관의 급속한 변화는 진행되고 있었다. 도시 근대화가 진전되면서 중세 도시적 이미지는 자연히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기의 변화는 기존의 도시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顛倒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王宮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 공간의 위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왕궁은 여전히 존엄한 공간이었고, 서울의 중심은 여전히 鍾路 = 雲從街였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顛倒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이후부터였다.

이 글은 식민지 시기 京城의 도시 경관 변화와 이미지의 顛倒가 朝鮮人 주민의 감수성과 의식

3) Mike Savage · Allen Wadd, 김왕배 · 박세훈(역), 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165.

4) Lynch는 공공의 이미지란 ① 특정한 물리적 현실, ② 공통의 문화, ③ 생리학적 특질의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Kevin Lynch, 金儀遠(監譯), 1988 《都市의 像 The Image of the City》 綠苑出版社, 17.

5) Mike Savage 외, 1996 《앞의 책》 148.

6) Kevin Lynch, 金儀遠(監譯), 1988 앞의 책, 74.

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경성의 경관 변화는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되 문화적 배경과 장소적 경험을 전혀 달리하는 異民族 지배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변화를 대하는 조선인들의 의식 속에는 식민지배 전반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같은 도시 주민으로 살아가는 在京城 일본인에 대한 태도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점 역시 이 글의 검토대상이다.

이 글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편의 관련 논문이 제출된 바 있다. 식민지하 새로운 도시 경관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규목과 김한배의 연구가 참고 된다.⁷⁾ 이들은 景觀論에 입각하여 식민지하 도시 경관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것이 '조선의 왕권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를 制壓, 顛覆하고 식민 지배자들의 권위를 위압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 식민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전우용은 대한제국기의 도시개조사업과 일제 강점 초기의 도시개조사업을 주로 도시 가로망의 신설 확장 방식과 새로운 건조물의 축조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양자가 모두 도시 서울의 '근대적 개조'를 추구했으나 대한제국기의 그것이 도시 발전의 내재적 흐름 위에 선 것인 반면, 일제 강점기의 그것은 대한제국기 도시개조사업의 성과를 '모욕'하고, 그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공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역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⁸⁾

김영근은 일제 강점 이후 새로운 가로망의 형성, 주요 근대적 건조물의 축조, 근대적 교통수단의 확충 등 식민지 상황에서 '근대적 시설, 건조물'이 늘어나는 과정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적 근대'를 맞게 된 도시 주민의 일상적 감수성을 분석하여 그를 '周邊人的 否定意識'으로 규정한 바 있다.⁹⁾ 그는 이를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근대적인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에 적응하고 살지만, 식민지 아래에서 이루어진 변화이기에 그것에 일정한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¹⁰⁾으로 정의하였다. 도시적 감수성 문제를 다룬 文學 분야 등에서의 최근 연구들도 1930년대 이후 도시생활의 근(현)대성에 주목함으로써 김영근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¹¹⁾ 그런데 이들 일련의 연구는 '식민지적 근대'의 양상을 도시적 消費生活에서 도출하려 하였기 때문에, 주로 자본의 공간지배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고, 식민지 권력의 공간정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인 감이 있다. 물론 193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가 자본주의적 日常을 보편화했고, 그 결과 도시 대중의 감수성 역시 그에 적합하게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연구에 1930년대에 생산된 텍스트들의 한계를 목살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대중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텍스트들은 가혹한 검열 제도 하에서 생산된 것들이기 때문에, 도시 대중의 느낌과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 일례로 1930년대 민족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소설은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며, 고작 일본의 대륙침략 정책에 편승하여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한 글들만 다수 생산되었을 뿐이다.¹²⁾ 이런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

7) 이규목, 2001 <서울 근대 도시경관 읽기>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한배, 2003 <남촌 도시경관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 남촌 -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8) 전우용, 1999 <대한제국기~일제초기 서울 공간의 변화와 권력의 지향> 《전통사론》 5.

9) 김영근, 1999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0) <위 논문> 166~167.

11) 최혜실, 1998 <경성의 도시화가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소설에 미친 영향> 《서울학연구》 9 ; 김진승, 1999 <서울에 만스홀을 許하라 - 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 강심호 외, 2003 <일제 식민지 치하 경성부민의 도시적 감수성 형성과정 연구 - 193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소비문화의 성립을 중심으로 - > 《서울학연구》 21 등.

왔기 때문에, 30년대 도시 대중의 감수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대중의 ‘탈정치적’, ‘탈민족적’ 성향만을 부각시켰고, 그 결과 식민지하의 민족문제를 무대 뒤로 후퇴시켜 버렸다. 그 대신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물질세계에 적응하는 문제만이 전면화 되었으며, 그에 따라 親日의 사회적 동기를 관념 속에서 확대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필자 역시 1930년대 이후의 자료들이 갖는 근본적 한계를 돌파할 능력은 갖지 못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公刊’된 텍스트 외에 口述史 資料를 폭넓게 활용해야만 비로소 현실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단 조선인이 발언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던 1920년대 경성의 도시 변화상과 이 시기 경성 도시 주민의 경성 및 경성시내 구조물들에 대한 이미지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1920년대가 1930년대에 비해 도시 공간에 대한 식민 권력의 직접 개입이 훨씬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지 시기 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식민 권력과 도시 대중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점이 도시 경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검토하는 의미도 지닌다.

II. 민족별 거주지 분리와 南北村

일본 민간인이 서울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2년부터였고, 그들의 거주지가 명시적으로 확정된 것은 1885년의 일이었다.¹³⁾ 1885년 조선 정부가 일본인 거류지로 남산 기슭을 지정해 준 데에는 이 일대를 위계상 낮은 공간으로 인식해 온 관행과 무관하지 않았다.¹⁴⁾ 이른바 南村이라고 불리던 남산 기슭은 조선 후기에는 武官이나 南人·少論 등 失勢한 양반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며,¹⁵⁾ 특히 일본인 거류지로 할당된 ‘公使館을 기점으로 하여 영사관에서 북행하는 작은 길의 양측과 그 서쪽 끝에서 후일 本町 1丁目이 되는 길의 동쪽 끝 부분까지의 구간’¹⁶⁾은 ‘진고개[泥岬]’라 하여 토질이 좋지 않아 세력 있는 사람들은 거주를 꺼리던 곳이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외국인의 서울 거주를 마지못해 허용하면서도 이들이 궁궐과 관아가 밀집해 있는 北村(청계천 이북)에까지 침투하는 것은 극력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서구 제국의 公館과 중국, 일본 公館이 모두 청계천 以南, 또는 以西 지대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일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주에 불편할 뿐 아니라 변변한 商圈도 형성되지 않은 ‘진고개’ 거주가 달가울 리 없었다. 그들은 진고개에 터를 잡은 직후부터 남대문로와 종로로 진출하고자 하였지만, 淸商의 압박과 조선 상인의 저항에 의해 쉽게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 1891년 <露店營業規則>을 제정하고 巡査를 두기 시작한 것도 일본 상인의 中心商街 진출을 돕기 위함이었다. 일본인은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비로소 南大門路에 진출할 수 있었다.¹⁷⁾

12) 일제 강점기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전우용, 2003 <한국 근대의 華僑問題>;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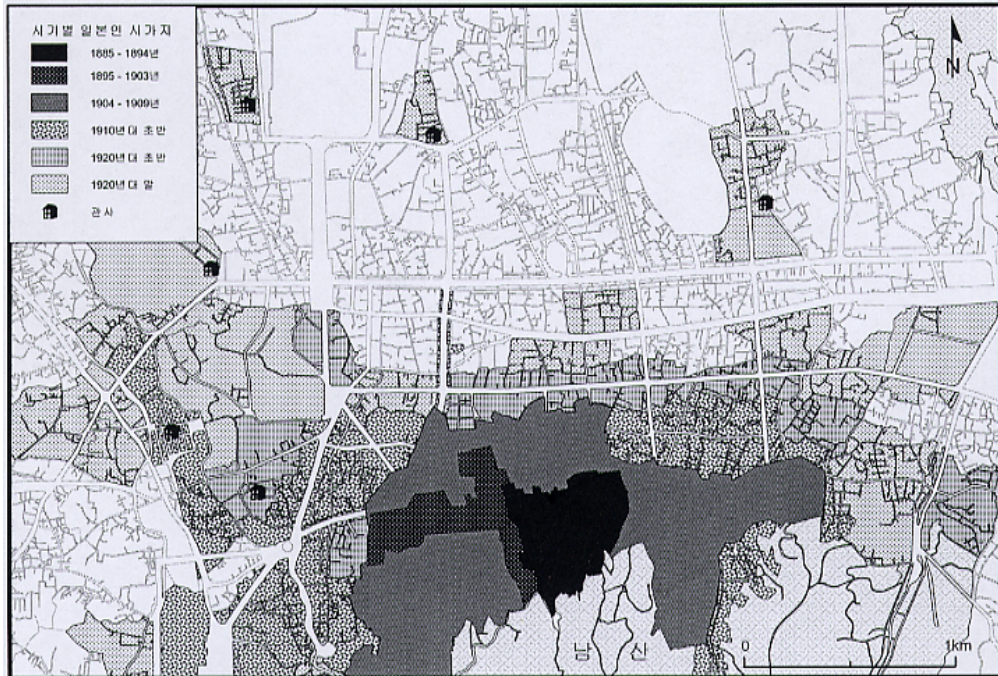
13) 일본인들의 서울 거류 경위와 그 확대과정에 대해서는 전우용, 2003 <일제하 서울 남촌 상가의 형성과 변천-本町을 중심으로> 《서울 남촌 -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참조.

14) 이규복·김한배, 1994 <서울 都市景觀의 變遷過程研究> 《서울학연구》 2, 17.

15) 小春, <예로 보고 지금으로 본 서울 中心勢力의 流動> 《開闢》 48, 1924.6, 56.

16)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577.

이를 계기로 하여 1897년에는 일본영사관, 일본 거류민 總代役場, 商業會議所가 모두 남대문동과 진고개의 접속지, 후일의 本町 1丁目으로 이전, 신축되었다.¹⁷⁾ 이 길이 本町 1丁目이 될 수 있는 공간적 기반 조성이 완료된 것이다.



〈그림 1〉 일본인 거주지의 확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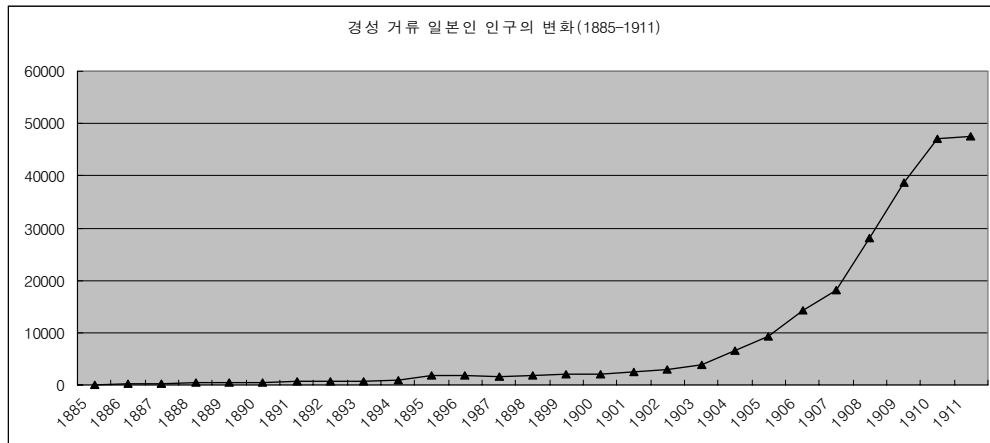
한편, 청일전쟁 승리를 배경으로 일본인의 신규 이주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1885년 당시 서울 거류 일본인 인구는 89인에 불과하였지만, 10년 후인 1894년에는 그 10배 가까운 848명으로 늘어났다. 在京 일본인 인구는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급증하여 1895년에는 1839명으로 늘어났고, 러일전쟁 이후 다시 급증을 거듭하여 1910년에는 47,148인에 달하였다.

일본인 신규 이주자들도 기존 거류지와 그 주변에 거주 및 상업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本町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남대문로, 북으로는 舊 淸國人 居留地(黃金町 = 현재의 을지로) 일대, 동으로는 장충단 공원 주변, 남으로는 용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점차 그 주거 공간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들이 청계천을 넘어 북진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까지 한국 정부와 맺은 거류지 약정이 여전히 유효했던 데다가 종로 일대 조선 상인들이 이들의 북촌 진출에 강력히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 양상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이후에도 한동안 변하지 않았다. 1914년 행정 구역 조정 당시, 경성부는 청계천을 경계로 하여 85개소의 洞과 101개소의 町으로 구분되었다. 청계천 이북과 이남은 대략 비슷한 면적이었는데, 청계천 이남은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라 하여 모두 町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7) 在京 일본인 商街의 확산 과정에 대해서는 전우용, 2003 앞의 글 참조.

18)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664-5.

〈그림 2〉 경성 거류 일본인 인구의 변화



※ 京城商業會議所, 1918 《京城商業會議所月報》 23을 토대로 작성. 각년 12월말 현재.

※ 1903년 이후는 용산 거주 인구 합산.

서울 거류 일본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조선인의 수도 늘어났다. 남촌에는 이미 많은 수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이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기존 가옥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內政을 사실상 장악한 이후, 仕宦 길이 완전히 끊겨 버린 남촌 거주 조선인 兩班들이 먼저 그 희생이 되었다.¹⁹⁾ 그 뒤를 일반 平民들이 뒤따랐다. 在京 일본인 인구는 일본의 한국 강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폭은 조선인의 그것을 훨씬 상회하였다.²⁰⁾ 새로 이주해 온 일본인들은 기존의 거류지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그럴수록 南村에서 밀려나는 조선인의 수도 늘어났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不出數年에 재산가가 되는 무수한 이주민 거지’²¹⁾라는 표현대로, 빈손으로 들어온 경우에도 기존 일본인 사회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또는 일본 민족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富를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1913년부터 본격화된 시구개정사업은 일본인들에게 막대한 토지자산을 몰아주었다. 시구개정사업의 계획가로서 남촌 일본인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관련 개발 정보가 일본인들에게만 흘러들어감으로써 그들은 토지 취득, 전당 등에서 엄청난 편의를 얻고 손쉽게 富를 거머쥔 수 있었다.²²⁾ 그래서 그들은 조선인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日人 1호의 증가는 조선인 5~6호 내지 기십호의 감퇴를 의미’²³⁾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남촌의 중심부는 바야흐로 조선인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본인의 ‘獨居地’가 되었던 것이다.

19) “차차 검은 옷 입고 쭉대거리들치 자꾸 이 남촌 일대를 침범하면서부터 슬슬 몰려 나가는 것이 양반이었다.” 鄭秀日, <서울 맛, 서울 정조-진고개> 《別乾坤》 4-6, 1929.10, 46.

20) 은기수, 2003 <해방 전후 남촌 주민구성의 변화> 《서울 남촌-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278.

21) <外人의 勢力으로 觀한 朝鮮人京城> 《開闢》 48, 1924.6, 39.

22) 孫禎陸, 1990 《日帝強占期 都市計劃研究》 一志社, 113.

23) 中間人, <外人의 勢力으로 觀한 朝鮮人京城> 《開闢》 48, 1924.6,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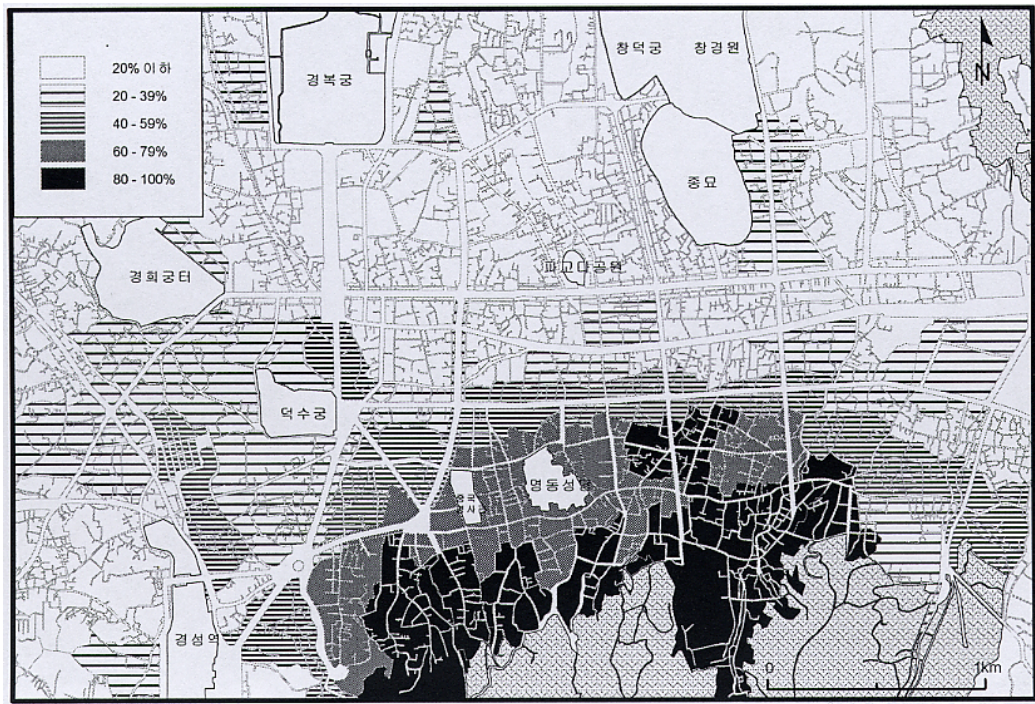
경성부 총인구와 조선인·일본인의 수

	1914	1915	1920	1925	1930
조 선 인	187,176	176,026	181,829	247,404	279,865
일 본 인	59,075	62,914	65,617	88,875	105,639
경성인구	246,251	241,085	250,028	342,626	394,240

※ 자료 : 1914, 1915, 1920년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5-30년은 《국세조사보고서》

※ 김영근, 1999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60에서 인용



〈그림 3〉 洞町別 일본인 인구 비율(1929)

남산 기슭의 경우 전체 거주자 중 일본인이 점하는 비중은 80~90%에 달하였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극소수였고, 그나마 性比가 극도로 왜곡되어 있어 家口單位가 아니라 개인 별로 일본인 家庭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⁴⁾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섞여 살기를 싫어하였거나²⁵⁾ 그 반대였거나 아니면 둘 다였을 것이다. 南村이 일본인의 ‘獨居地’가 됨에 따라 이 일대는 ‘지배자의 공간’으로 그 위상이 역전되었다.

24) 은기수, 2003, 앞의 글, 286.

25) 김영근, 1999 앞의 글, 76.

서울 남촌의 민족별 인구구성(1925)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민족별 인구	43,643	37,210	1,949
남촌인구총수	82,802		
남촌인구/서울인구	24.2%		
남촌일인/전체일인	49.4%		
남촌일인/남촌인구	52.7%		

※ 1925 《朝鮮國勢調査報告書》를 토대로 작성.

그런데 남촌의 면적이 북촌과 대략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 실제로는 북촌에 궁궐, 관아 등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민가가 자리잡을 수 있는 면적은 오히려 더 적었다 — 1925년 시점에서 남촌인구는 서울 인구의 24.2%에 불과하였다. 南村 거류 일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北村의 과밀화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경우에 따라 1인당 5坪 미만의 공간밖에 점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²⁶⁾ 이 점은 다음 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선인의 경우 세대당 평균 토지 소유는 일본인의 약 59%이고 1인당 토지소유는 약 45%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남촌이 널찍한 정원을 지닌 和洋折衷式 또는 조선식과 일본식 절충의 文化住宅으로 뒤덮이는 것과는 반대로 北村에는 기존의 넓은 筆地가 分割되어 소규모의 작은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²⁷⁾ 그 뿐만이 아니었다. 都市 貧民窟의 출현 역시 일제 강점의 직접적 산물이었다. 조선시대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도성 내에는 貧民窟의 존재가 허락되지 않았으나,²⁸⁾ 일제 강점 이후 失業狀態에 내몰린 元 경성거주 조선인과 지방에서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등의 식민지 農政에 따라 몰락한 농민들이 다수 京城에 몰려 들어오면서 상당 규모의 貧民 集團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가뜰이나 비좁아진 北村에서 행랑살이로 연명하지 않으면, 성벽 주변이나 도시 외곽에 ‘土幕’을 짓고 살아야 했다. 1920년대에는 朝鮮神宮 造營, 公設運動場 竣工등으로 인해 남촌 일대에서 쫓겨나는 빈민들도 크게 늘어났다.²⁹⁾ 北村 뿐 아니라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든 ‘貧民’ 문제로 몸살을 앓아야 했고, 그런만큼 조선인 거주 지구에는 ‘貧民地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1917년 현재 세대별,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단위 : 평)

국적별	세대별 평균 토지소유	1인당 평균 토지소유
조선인	41.0	8.9
일본인	70.8	18.7
중국인	49.3	11.9
기타(서양인)	869.2	365.7

※ 姜秉植, 1994 《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研究》 民族文化社, 130.

26) 《朝鮮日報》 1924.10.12 <人口로 滅亡해 가는 朝鮮人 京城의 運命>

27) 손세관, 2001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시정개발연구원 참조.

28) 野崎眞三, <京城貧民窟に就て> 《朝鮮公論》 14-3, 1926.3, 19.

29) <위 논문> 22.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남촌과 북촌이 서로 다른 계층의 거주공간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富豪나 有力者, 심지어 일본으로부터 爵位를 받은 新貴族조차 南村에 새 거주지를 마련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³⁰⁾ 주거지가 계층별로 분리되는 현상은 어느 도시에서나 나타나는 것이지만, 식민도시 京城의 경우, 계층별 분리보다는 민족별 분리 경향이 훨씬 강력했고 또 지배적이었다. 그런 만큼 남촌과 북촌은 각각 일본인과 조선인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읽힐 수밖에 없었다.

경성부내 민족별 호별세 납부상황(1924)

구분	총세대수	납세인원	소득세	납세인원비
조선인	40,729	2,395	6,048,050	17호당 1인
일본인	18,142	9,559	22,796,250	2호당 1인
기타 외국인	815	149	1,117,700	3호당 1인
계	59,686	12,103	29,962,000	

※ 동아일보 1924.7.4 기사에서 작성(姜秉植, 1994, 앞 논문, 195)

일제 강점기 南村과 北村은 모든 면에서 대조되는 두 개의 구역(district)이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민족 귀속의 차이는 다른 모든 계층별, 성별, 출신지역별 차이들을 압도하는 규정적 요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1920년대 京城의 도시공간은 민족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³¹⁾

요컨대 남촌과 북촌을 가르는 청계천(edge)은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간격을 표상하는 것이었으며,³²⁾ 동시에 富者와 貧者를 각각 상징하는 것이었다. 일부 일본인들은 그 간격을 조선인 자체의 劣等性에서 찾았지만,³³⁾ 사실 그 간격은 일본인 행정가 스스로 “실로 北部에 대해 미안하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³⁴⁾ 식민지 권력의 극도로 차별적인 행정에 의해 지속적

30) 필자는 《朝鮮紳士名鑑》(1910), 《現代漢城의風雲と名士》(1910), 《京城市民名鑑》(1921), 《朝鮮紳士錄》(1931) 등 1910년대부터 1920년대 후반기 사이에 발간된 주요 인명록을 검토해 보았지만, 1910년대의 宋秉峻을 제외하고는 남촌 거주 조선인 유력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 宋秉峻 마저 강점 후의 어느 시점에선가 북촌 桂洞으로 이주하였다.

31)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의 자본주의적 도시화 양상에 압도되어 민족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연구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1930년대에 생산된 텍스트들이 1920년대의 그것만큼만 ‘자유롭게’ 만들어졌다면, 1930년대에 대해서도 그 같은 인식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32) 전우용, 2001 <청계천과 천변 ; 공간과 상징의 역사적 변천> 《청계천-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 구소 25.

33) 일례로 어떤 일본인은 서울의 공중변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성은 인구 30여만으로 대도시로 모자람이 없지만 인구의 약 1/6이 내지인이고 나머지는 전혀 위생사상이 없는 鮮支人이다 … 그들은空地라든가 집과 집 틈의 작은 공간, 혹은 하수구에 대소변을 보고 있다 … 공중변소를 설치하더라도 이들의 잇따른 사용에 의해 하루아침에 받을 델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워져 버려 다른 통행인이 들어가려 해도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어 마침내 도로 나와 버리고 만다 고 한다 … 부근 거주 鮮支人을 위한 공중변소가 되는 감이 있으므로 경성부에서는 오히려 공중변소를 전면 철폐할까도 고려중인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지배민족의 인식착란이 이 정도로 극단적이었으니, 남촌과 북촌의 극단적 차별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一記者, <京城府의現在と將來> 《朝鮮公論》 16-7, 1928.7, 34~35.

으로 넓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朝鮮人들이 ‘惡이 나리만큼 殘忍한 差別을 한다’면서 怨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³⁵⁾

III. 새로운 건조물들

서울에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건축행위도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건축행위가 서울의 조선인 일반에게까지 유의미한 것으로 변화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 구체적으로는 韓國銀行 社屋 신축(1909) 이후의 일이었다. 이후 일본인들은 공공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全權을 장악하였다. 신규 公共 건물의 용도, 규모, 위치는 일본인 지배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던 바, 그들의 건축행위는 서울 도시 공간의 이미지 요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진고개(泥岬)에서부터 형성되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일제 강점기의 주요 관공서는 모두(1926년 이후의 총독부를 제외하고) 南村에, 그것도 慶運宮(德壽宮) 맞은편의 京城府廳을 중심으로 사방 1km 이내에 설치되었다.³⁶⁾ 1920년 이후부터는 시구개정사업 등을 이용하여 巨富를 축적한 일본인 민간 자본가들도 다투어 신규 상업 건축물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이후 1920년대까지 南村에 축조된 주요 근대 건축물은 다음 표와 같다. 반면 북촌에는 1907년에 건립된 YMCA 건물과 1921년에 완공된 천도교 대교당 등 종교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가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들어서기까지는 조선총독부병원(1907 大韓醫院 本館 建物로 신축)이 북촌 유일의 공공건물이었다.

1927년의 한 잡지 기사는 북한산에서 서울을 조망하는 형식을 빌어 서울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남촌에 소재한 것들은 조선은행, 경성우편국, 상업은행, 조선식산은행, 명동성당, 동양척식회사 등 수직으로 솟아 오른 고층 건물들이었음에 반해 북촌에 소재한 것들은 구 궁궐이나 학교 등 넓은 평면만 확보한 것으로 랜드마크 구실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³⁷⁾

1920년대 전반기까지 축조된 대규모 건조물은 대개 관청 건물이거나 국책회사·은행 등의 사옥이었기 때문에, 건조물의 위치 및 건물양식은 식민지 권력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³⁸⁾ 식민지 권력은 근대적이고 위압적인 고층 건물을 南村에 집중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京城

34) 1924년 당시 경성부 토목과장이던 河野의 말. 《東亞日報》 1924.3.22 <血稅 代價로 所得이 何>

35) 《開闢》 48, 1924.6 <外人의 勢力으로 觀한 朝鮮人 京城>, 45.

36) 日帝의 京城府 관아배치 계획은 明治維新 직후 일본 정부가 기도했던 “日本橋 중심 10리 四方의 洋式化”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孫禎睦, 1990 《日帝強占期 都市計劃研究》 一志社, 111.

37) 이 잡지에서 소개한 장소·건물들은 다음과 같다. 총독부, 경기도청, 법학 전문학교, 遞信局, 조선보병대, 덕수궁, 경성중학교(경회궁), 라디오방송국, 소련영사관, 이화여학교, 배재학교,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남대문정거장, 신용산과 구룡산, 남대문, 조선은행, 경성우편국, 상업은행, 식산은행, 천주교당, 동양척식회사, 종각, 탑골공원, 기독교청년회관, 종로경찰서, 창덕궁, 종묘, 창경원, 총독부 병원, 경성제국대학, 고등상업학교, 고등공업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동대문, 蘼島水道局, 중앙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別宮, 侍天教堂 <無學大師新京城求景> 《別乾坤》 2-7, 1927.11, 92~94.

38) 이규목, 2001 <서울 근대 도시경관 읽기>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14.

에서, 나아가 全朝鮮에서 가장 근대색이 짙은 지역으로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南村과 北村의 전통적 이미지를 역전시켰다. 이로써 南村은 식민 도시 京城의 새로운 공간적 중심이자 식민지 전역의 문화를 조율하는 문화적 중심이 되었다. 지방에서 서울로 구경오는 사람들은 北村의 옛 궁궐보다도 먼저 南村의 신 문물과 신 건물을 찾게 되었고,³⁹⁾ 그를 통해 변화된 정치적 상황을 너리에 새겼다. 또 새로운 건조물들은 하나같이 권위적인 르네상스 양식으로 축조되어 식민지 권력의 威壓性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

남촌의 주요 근대 건축물

준공연도	건물명	소재지
1907	統監府廳舍(후에 朝鮮總督府廳舍) 漢湖農工銀行(朝鮮殖産銀行, 1923 증축)	남산 기슭 南大門通 2정목
1908	廣通館(大韓天一銀行, 手形組合)	南大門通 1정목 19
1911	東洋拓殖株式會社	黃金町 2정목 195
1912	漢城銀行 朝鮮銀行	南大門通 1정목 14 南大門通 3정목 110
1914	朝鮮호텔	長谷川町
1920	京城商業會議所	長谷川町
1922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黃金町 2정목 199
1923	總督府立 京城圖書館	長谷川町 6
1924	朝鮮商業銀行 京城日報社	南大門通 2정목 111 太平通
1925	本町빌딩 京城本町綜合빌딩 京城驛	本町 2정목 本町 1정목 蓬萊町 1정목
1926	京城府廳 南大門빌딩	太平通 南大門通 5정목 1
1928	京城電氣會社 社屋 中央호텔 京城府立圖書館	黃金町 2정목 吉野町 長谷川町 115
1929	商品陳列館 京城銀行集會所	南大門通 長谷川町 112

※ 윤인석, 2003 《남촌의 근대건축물》 《남촌-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참조.

일제 식민지 권력은 官廳 및 公共建物を 축조하는 과정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위치 선정을 통해 기묘한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냈다. 식민지 권력이 선정한 관청 및 공공건물의 위치는 대개 조선인들이 神聖・尊嚴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던 곳이었다. 옛 宮闕이나 官衙 자리에 새 공공건물이나 施設을 배치한 것은 明治維新 이후 東京의 大名 邸宅을 공원 부지나 학교 부지로 활용한 경험과 無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場所와 관계 맺는 방식에는 단순히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나 무성의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기존 건물・

39) 春坡, <서울구경 왔다가 잊어버리고 가는 것> 《別乾坤》 4-6, 1929.10, 131.

시설의 흔적을 상징적으로만 남겨 놓은 채, 그 시설과 동시에眺望되는 위치에 대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되어 있었다.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어느 도시에서나 새로운 권력집단은 당시의 정치적 변동을 과시하기 위해 정통적인 역사적 지식을 파괴했다고 하였다.⁴⁰⁾ 그런데 일제 식민지 권력의 건물 축조는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 그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우선 옛 궁궐과 그 주변이 일차적인 이미지 왜곡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부터 조선 왕조의 正宮으로 건립되었고, 대원군이 重建한 이후 正宮으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던 景福宮은 일제의 한국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부터 바로 훼손되기 시작하였다.⁴¹⁾ 景福宮 毀撤의 명분은 ‘公園造成’이었지만, ‘造成’ 보다는 ‘毀撤’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 일제는 한국 강점 직후부터 조선 왕조의 기념비적 상징물들을 一掃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때 파괴를 면한 景福宮의 나머지 전각들도 勤政殿과 慶會樓를 제외하고는 1915년 朝鮮物産共進會를 앞두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철거되었다.⁴²⁾ 景福宮 殿閣 철거에 뒤이어 朝鮮總督府 新廳舍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총독부 新廳舍의 준공을 목전에 둔 1926년 8월 초에는 景福宮의 정문이던 광화문이 동쪽으로 이전되었다.⁴³⁾ 식민지 권력은 애초 광화문을 헐어 버릴 작정이었으나 일본인들조차 그 비문화적 행태를 비난함에 따라 마지못해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純宗의 거처였던 昌德宮과 합쳐져 단일 宮闕처럼 사용되던 昌慶宮은 動物園 植物園 博物館으로 구성된 公園이 되었다. 1907년 宮內次官 小宮三保松은 애초 昌慶宮을 純宗皇帝의 산보장이자 위락장으로 삼겠다는 명목으로 동물원 식물원을 조성하였으나 동식물이 어느 정도 모이자 바로 (1909) 일반에 개방해 버렸다.⁴⁴⁾ 대한제국기의 正宮으로 사용되던 慶運宮(德壽宮)은 高宗의 생존 시에는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나마 유지되었으나 高宗 死後 한 때 京城府 廳舍 建築地로 검토하다가⁴⁵⁾ 1932년 8월 公園으로 開放하였다.⁴⁶⁾ 慶運宮 앞에는 1926년 京城府 廳舍가 새로 건립되었다.

대한제국기 慶運宮과 虹橋로 연결되어 보조 궁궐 역할을 하던 慶熙宮 부지 일부에 통감부 중학교가 건립된 것은 1909년의 일이었고, 1911년 6월에는 나머지 부지와 건물 일체가 총독부에 移管되어 왕실 재산에서 제외되었다. 총독부는 1926년부터 慶熙宮 域內의 건물들을 축차로 민간에 불하하였다. 正殿이던 崇政殿과 會祥殿을 헐어 大和町 3丁目の 曹溪寺로 옮겼고, 興政堂은 西四軒町의 光雲寺로, 正門이던 興化門은 博文寺로 옮겼다. 殿閣의 樑柱, 이전과 때를 같이 하여 宮址도 크게 축소되었다.⁴⁷⁾

다음으로는 대한제국기 ‘自主獨立’, 또는 ‘反日’의 象徵으로 건립·설치되었던 건조물과 그 주변이 새로운 건조물에 의해 위압되었다. 일제는 1909년 帝國의 象徵으로 건조되었던 圓丘壇 자리에 일시 토관제조장을 설치하였다가⁴⁸⁾ 1914년에는 아예 圓丘壇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웠다.⁴⁹⁾ 다만 境內의 皇穹宇와 石鼓壇만은 존치해 두었는데, 이로써 太祖와 天地의 神位

40) Mike Savage 외, 김왕배·박세훈(역), 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175.

41) 《每日申報》 1910.9.28 <宮基公園>.

42) <京城의 名勝과 古蹟> 《開闢》 48, 1924.6, 106.

43) 《朝鮮日報》 1926.8.9 <蹤迹을 감추는 歷史 깊은 光化門>

44) 下郡山誠一, <昌慶苑의 今昔感> 《朝鮮及滿洲》 354, 1937.5, 69.

45) 《朝鮮日報》 1923.2.10 <府廳新築은 德壽宮>

46) 《東亞日報》 1932.8.1 <德壽宮 開放을 正式로 發表>

47)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1 《서울육백년사》 4, 서울특별시, 442.

48) 京城府, 1936 《京城府史》 2, 429.

를 모시던 皇穹宇는 호텔의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본 建물이 헐린 채 남은 부속 건물은 초현대식 호텔 건물 옆에서 대한제국의 기념비적 건물이 얼마나 초라한 지를 표상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최초의 기념물이었던 독립문 주변도 이미지 왜곡의 대상이 되었다. 독립문과 함께 조망되는 위치에 당시로서는 초현대적인 서대문 감옥이 세워진 것은 1907년의 일이었는데,⁵⁰⁾ ‘獨立’이라는 단어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던 식민지 권력이 그 앞의 獨立門을 존치시킨 것은 일견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아마도 ‘獨立’과 ‘監獄’이라는 두 단어가 일련의 연상작용 속에 자리잡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싶다.

애초 乙未事變의 희생자를 기릴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후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殉死者 일반을 기리는 聖所로 자리매김되었던 獎忠壇 주변은 극단적인 이미지 역전의 대상이 되었다. 獎忠壇 옆 雙林洞 일대가 遊廓 敷地로 할당되어 新町遊廓이라는 당시 조선인들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賣淫窟이 등장한 것은 1904년의 일이었다.⁵¹⁾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의 聖所를 賣淫窟로 조롱하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조선인들에게 그 이미지의 逆轉은 엄청난 屈辱感을 주었을 것이다. 수백 년 간 都城의 관문으로 기능하였던 남대문 바로 앞에는 1925년에 京城驛舍가 웅장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남대문 주변 성곽은 이미 1907년 7월 일본 황태자의 방한을 계기로 일부가 헐려 버렸고, 1908년 2월 일본인 내무차관 木內重四郎 주도로 성벽처리위원회가 신설된 후에는 문루만을 남긴 채 일대 성벽이 완전히 철거되었다.⁵²⁾ 성곽이 사라지고 문루만 초라하게 남은 남대문은 京城驛舍와 朝鮮神宮에 좌우로 포위된 채 王朝의 몰락을 상징하는 건물로 남았다. 고종황제 청경기념비각의 정문도 3·1운동 이후 일본인 古城梅溪에게 팔려 個人別莊의 門이 되어 버렸다.⁵³⁾ 남촌 유일의 대형 국가기념시설이었던 永禧殿은 1909년에 철거되었고 그 자리는 한동안 빈 터로 남아 있다가 후에 수도사무소(1922)가 들어섰다.⁵⁴⁾

중세 서울의 案山으로 신성시되던 南山 國師堂 자리에는 官幣大社 朝鮮神宮이 들어섰다. 조선신궁의 경우 병합 직후인 1912년부터 조선총독부 청사와 함께 자리가 물색되었는데, 조선총독부 청사를 경복궁에 앞에 짓기로 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위치인 남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경복궁 앞의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남산 자락의 조선신궁은 서로 마주보며 경성을 완전히 공간적으로 제압하는 상징이 되었다.⁵⁵⁾

그런데 왕조시대의 궁성, 관아 등 주요 랜드마크들을 파괴하고 자국 내에서 유행하던 르네상스식 건물들로 대체시키는 것은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다.⁵⁶⁾ 다만 일본 식민 권력이 京城에서 행한 방식은 기존 랜드마크의 일부를 초라한 상태로 남겨 두어 규모에서나 양식에서나 새 건물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같이 定型화된 건축 행위의 결과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신규 건조물과 조선왕조의 舊建物を 항상 짝하여 인지하였다. 경복궁 - 總督府 新廳舍 / 덕수궁 - 京城府 廳舍 / 남대문 - 商工獎勵館 / 원구단 - 鐵道호텔 등이 동시에 眺望되었고 이는 각각 舊朝鮮과 新朝鮮(日本 지배하의 朝

49) 京城府, 1934 《京城府史》 1, 852~853.

50) 이규복·김한배, <앞 논문> 26.

51)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京城發達史》 129~130.

52) 京城府, 1936 《앞의 책》 292.

53) 京城府, 1934 《앞의 책》 698.

54) 김한배, 2003, <앞 논문> 95.

55) 목수현, 2003, <‘남촌’문화-식민지 문화의 흔적> 《서울 남촌 -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242.

56) 김한배, 2003, <앞 논문> 95.

鮮)을 대표하는 이미지 요소로 즉각 인지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건물 배치는 조선인 주민들이 지녀온 場所의 이미지를 그대로 연장하면서 그 자리를 ‘일본의 지배’로 채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일 공간, 동일 視野에서 ‘野蠻과 文明’, 또는 ‘초라함과 웅장함’이 극단적으로 대비되었고, 이는 조선인의 자의식 형성에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영향을 미쳤다. 京城의 도시 공간은 ‘朝鮮적인 모든 것’을 멀리·부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text)가 되었다.



〈그림 4〉 景福宮 터의 朝鮮總督府

IV. 街路 環境



〈그림 5〉 鐵道호텔과 皇穹宇



〈그림 6〉 서대문형무소



〈그림 7〉 德壽宮에서 바라본 京城府廳舍



〈그림 8〉 獨立門

조선시대 서울의 도로망은 경복궁 앞-종로간 육조거리, 종로, 남대문-종로간 남대문로의 3대 간선도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종로와 남대문로가 교차하는 ‘鍾路 네거리’는 서울의 중심점(node)으로 인지되어 왔다. 1896년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도로인 本町通과 남대문로가 교차하는 지점(鮮銀前 廣場, node)에 일본영사관, 거류민단 역소, 경성우편국 등이 축차로 건축되면서 이 지점이 京城 거류 일본인의 중심점으로서 새로운 상징성을 획득하였다.⁵⁷⁾ 이후 이 두 지점은 일제 강점기 내내 각각 조선인과 일본인을 상징하는 지점으로 인지되었다.

일본인들이 서울의 가로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896년경부터였지만, 당시의 가로 개수는 남대문로에서 本町通에 이르는 일본인 거류구역에 한정된 것이었다.⁵⁸⁾ 京城 街路 體系가 일제 식민지 권력에 의해 대규모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화를 전후한 시기부터였다. 일제는 1909년부터 황토현 광장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도로(太平通)와 덕수궁에서 옛 구리개길을 가로질러 광희문에 이르는 도로(黃金町通)를 개착하기 시작하였던 바,⁵⁹⁾ 도로의 新設・擴張은 1912년 10월 7일 시구개수에 관한 훈령(총독부 훈령 제9호)을 계기로 연차 계획하에 추진되었다. 1913년부터 본격화된 시구개수사업의 결과 총 21,325m의 도로와 225m의 광장이 정비・조성되었다.⁶⁰⁾ 그런데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대에 신설・확장된 도로는 대한문 앞에서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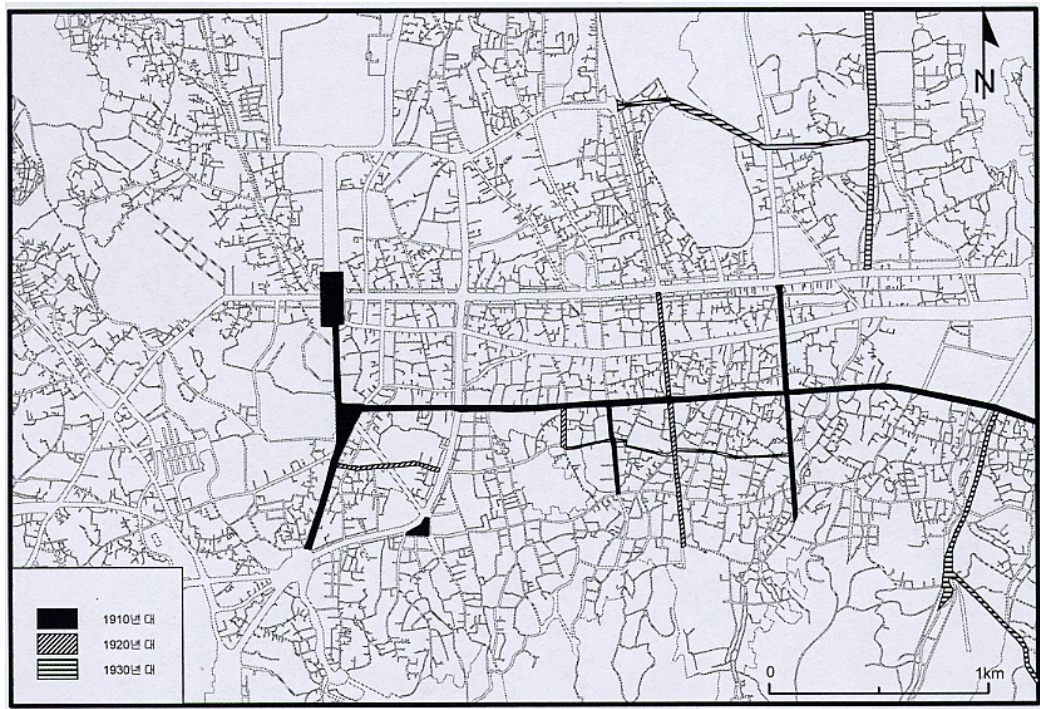
57) 전우용, 2003 <앞 논문> 183.

58) <위 논문> 181~182.

59) 太平通과 黃金町 道路의 개착, 개수과정에서 대해서는 김기호, 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 참조.

60) 손정목, 1990 《앞의 책》 105.

구리개길을 거쳐 광희문에 이르는 도로(黃金町通)를 제외하면 모두가 남북방향의 도로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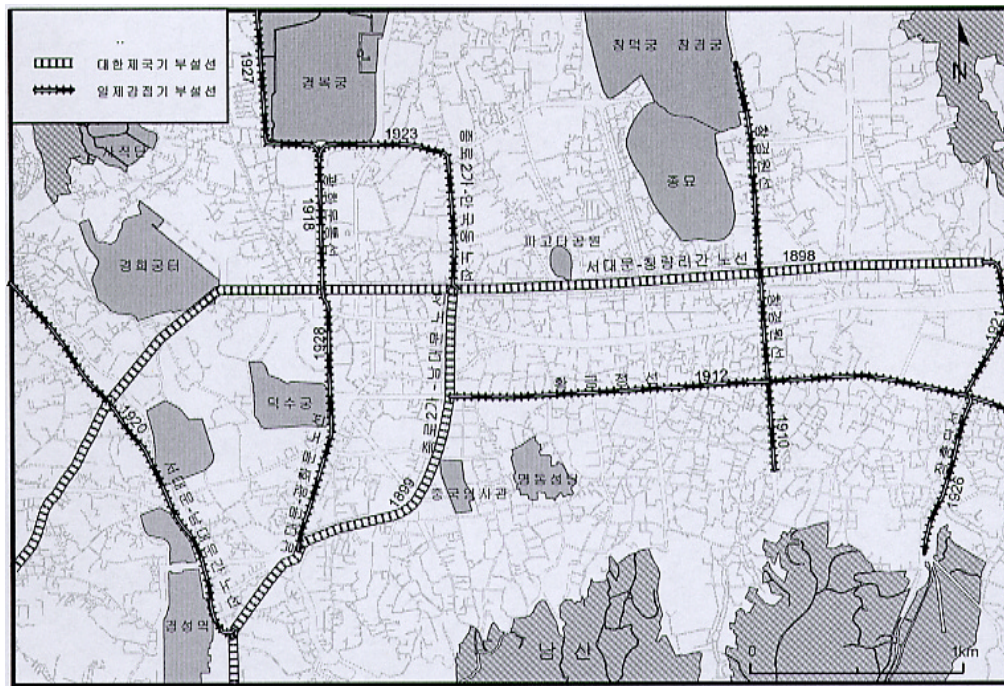
〈그림 9 京城 중심부의 시기별 가로망 변화〉

우선 黃金町通의 개수는 조선왕조 개창 이래 ‘國中의 大路’로 기능해 왔고, 都城의 중심 가로로 認知되어 왔던 종로에 비견되는 또 하나의 중심가로를 만드는 사업이었다.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黃金町는 南村의 중심가로가 되었고, 京城 도시 구조의 중심도 남쪽으로 이동하였다.⁶¹⁾ 황토현 광장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도로(太平通)는 장대한 바로크적 직선 경관축을 통해 식민지 권력의 위압적 권위를 표상하는 동시에 유사시 경성을 군사적으로 신속히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⁶²⁾ 또 永樂町 도로는 本町, 明治町, 旭町 등 남촌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 지역과 新設의 黃金町 길을 연결함으로써 남촌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東西四軒町에서 總督府 病院(昌慶苑)에 이르는 도로 역시 경성 유일의 慰樂, 衛生施設에 대한 남촌 주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촌 중심의 시구 개수는 총독부가 경복궁 앞으로 이전한 1920년대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에는 주로 남촌 내의 기존 가로를 연장하고 막힌 곳을 새로 뚫어 남촌 일대 도로망을 격자형으로 만드는 데에 치중하였다.⁶³⁾ 이로써 북촌이 시구개수에서 배제되어 여전히 과거의 ‘구불구불한’ 골목길 일색이었던 데 반해, 남촌 가로는 시원하게 뚫린 ‘근대적 도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61) 김기호, 1995 <앞 논문> 50~51.

62) <위 논문> 58.

63) 孫禎睦, 1990 《日帝強占期 都市計劃 研究》 一志社, 158.



〈그림 10〉 전차노선의 변화

일제 강점기 전차노선도 신규 도로를 따라 신설되었다. 창경원선(1910), 신용산선(1912), 黃金町線(1912), 本町 4丁目線(1915) 등은 시구개수사업으로 확장·신설된 도로를 따라가면서 일본인 거주지와 총독부, 병원, 창경원 등을 잇는 선이었다.⁶⁴⁾ 이는 대한제국기에 부설된 전차 노선이 종로와 남대문로, 서대문 - 마포가도 등 기존大路 및 조선인 상업 중심지에 놓였던 것과는 전혀 대비되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북촌에는 총독부와 총독부 병원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차선이 추가되지 않았다. 시구개수와 전차 부설로 면목을 일신한 남촌의 주요 가로에는 근대식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섰다. 특히 黃金町通과 南大門通에는 東洋拓殖會社, 朝鮮殖産銀行, 商工獎勵館, 京城電氣會社 등 국책회사, 은행 등의 社屋이 자리잡아 이 두 街路를 京城의 중심 업무지구로 만들었다. 반면 太平通은 신설된 도로이면서도 조선인 거주지역이었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초라한 모습을 면치 못하였다(〈그림〉 참조).

새로운 건조물 뿐 아니라 가로 시설물도 남북촌 도로 사이에는 심각한 차별이 있었다. 식민지 시기 내내 市區改修 事業費를 제외한 경성부의 토목사업비는 거의 전액이 남촌의 도시환경 정비에 사용되었다. 本町에 민간 전등이 출현한 것은 1901년의 일이었고, 1910년 이전에 이미 가로등이 등장하였다. 1910년 이후 本町의 가로등 유지비는 경성부 부담이 되었다.⁶⁵⁾ 경성부는 黃金町과 本町 가로에 수시로 물을 뿌려 청결을 유지하였고, 1920년경에는 黃金町과 本町通 도로를 포장하였으며,⁶⁶⁾ 1925년에는 포장재를 아스팔트로 교체하였다.⁶⁷⁾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步車道

64) 李惠恩, 1988 <大衆交通手段이 서울시 發達에 미친 影響 : 1899~1968> 《地理學》 37, 27.

65) 《朝鮮日報》 1931.3.14 <街路의 電燈도 日人街에만 置重>

66) 《東亞日報》 1924.3.22 <血稅 代價로 소득이 어떨까>

를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1920년부터는 本町 1-2丁目 구간에 우마차의 통행을 금지하였다.⁶⁸⁾ 반면 수백년간 ‘國中の 大路’였던 鍾路에는 청계천을 준설한 汚泥를 뿌려 두어 사시사철 먼지가 흩날리고 냄새가 진동하도록 방치해 두었다. 鍾路 한복판의 랜드마크(landmark)이자 漢城・皇城의 象徵이었던 普信閣이 쓰레기장이 되는 지경이었다.



〈그림 11〉 태평통(좌)과 남대문통(우)

차별적인 市區改修, 차별적인 도로정비의 결과 남촌의 중심 가로인 本町과 북촌의 중심 가로인 鍾路는 가로 자체로서 명백히 대비되는 두 개의 길(path)로 인지되었고, 각각의 중심지대인 鮮銀前 廣場과 鍾路 네거리는 주변 도로와 건축물, 도로를 왕래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⁶⁹⁾ 綜合적으로 비교·대조되는 두 개의 대표적인 地點이 되었다. 鮮銀前 廣場은 南村을 상징하는 地點(node)이었고, 鍾路 네거리는 남촌을 상징하는 지점이었다. 鍾路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오 천년 역사국의 오백년 수도의 중앙 大거리가 이렇게도 醜雜하드란 말이냐!...醜의 要點은 사람들

67) 《東亞日報》 1929.3.29 <道路修築請願>

68) 本町 1, 2정목에서는 오후 4시 이후 우마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朝鮮日報》 1920.6.24 <市内運送業者 不滿을 訴하라>

69) 도시란 외면적으로 무수한 통행활동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인 자체가 가로 경관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송, 1999 《서울에 탄스홀을 許하라 - 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47 참조.

들이다.”⁷⁰⁾라고 할 만큼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本町에는 ‘진고개 紳士’가 아니면 출입하기 어려웠다. 北村은 초라하고 비문명적일 뿐 아니라 不潔하고 陰濕한 空間으로 ‘再創造’되었다.

두 地點은 가로와 규모, 가로변 건축물이나 行人의 의복 등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조선인들은 이 두 地點에서 그 이상의 것을 느꼈다. 조선인들은 이 두 地點을 비교하면서 ‘一視同仁’의 虛構性을 明瞭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地點의 차이는 兩民族의 경제력이나 생활문화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京城府의 극히 차별적인 行政에 있었고, 조선인들은 종로와 本町을 거닐면서 그 사실을 스스로 看取할 수 있었다.

1920년대 京城府 豫算의 70% 정도가 道路 및 都市河川管理費와 청소비였는데,⁷¹⁾ 이 豫算의 80% 이상이 南村에 집중되었다. 本町, 黃金町, 南大門通은 1920년 시점에 이미 鋪裝이 완료되어 있었지만, 鍾路에는 이 때에도 청계천에서 준설한 汚泥를 덮어 두고 있었다.⁷²⁾ 人道와 車道가 구분된 길도 黃金町, 長谷川町, 太平通 뿐이었고, 서울 최대의 道路인 鍾路에서 관련 공사가 ‘눈치레 삼아’ 시작된 것은 1924년의 일이었다.⁷³⁾ 수시로 범람하여 주변 民家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⁷⁴⁾ 청계천 개수 공사나 그 지류에 대한 하수공사도 남부에서만 진행되었다.⁷⁵⁾ 汚物 청소에서도 차별은 일반적이었다. 쓰레기의 경우 15,425명의 人口가 있던 北部 제5구는 월 4회 수거한 반면, 9,928명의 人口가 있던 南部 제5구는 월 6회씩 수거하였다. 糞尿處理도 다를 바 없었다. 인구 8,773명인 南部 제5구에서 糞尿處理를 담당하는 인원은 16명이었지만, 그 두 배의 인구를 지닌 北部 제5구에는 고작 두 명만이 배정되었다. 길에 물을 뿌릴 경우에도 남부에는 자동차로, 북부에는 人車로 하였다.⁷⁶⁾ 전차의 운행 시간, 버스의 배차 간격에도 남촌과 북촌에는 차별을 두었다.⁷⁷⁾

남대문밖에 상비소방대가, 永樂町에 경정소방대가, 용산에 용산소방대가 각각 배치되었지만, 北部에는 소방출장소 한 곳조차 없었다.⁷⁸⁾ 鍾路에는 늘상 우마차가 다니면서 길 위에 배설물을 쏟아 내었지만 本町의 포장도로에는 우마차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영세민을 위한 府營住宅도 漢江通, 三坂通의 일본인용 주택은 13평이었는데 반해, 蓬萊町, 훈련원의 조선인용은 3평짜리 ‘헛간’이었다. 公園 역시 일본인 거주구역 내에 있는 獎忠壇 公園, 孝昌 公園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였지만, 북촌의 公園(社稷壇 公園, 탑골 公園)들은 아예 방치해 두었다. 그리하여 탑골공원은 ‘공원답지도 않은 공원’이며, ‘할 일 없고 갈 데 없어 낮잠이나 자러 모여드는’⁷⁹⁾ 사람들이 가득 찬 곳, 심지어 ‘만일 내가 서울이요 탑골공원이 나의 코라고 한다면 나는 코 없는 사람이 될지언정 당장에 외과의사에게로 뛰어가서 코를 짹 깎아버릴 것’⁸⁰⁾이라고 할 정도로 추

70) 네눈이, <醜로 본 京城, 美로 본 京城> 《開闢》 48, 1924.6, 117.

71) 京城府, 《京城府歲入出豫算書》各年版

72) 《東亞日報》1922.7.11 <交通不便한 東門路 - 청계천 수축공사의 흙을 동대문동 낮은 길에 덮어>
; 同 1922.10.24 <市民의 不平에 鑑하여 鍾路通길 左右에 下水道를 내어>

73) 《東亞日報》1924.3.22 <血稅代價로 所得이 何>

74) 《朝鮮日報》1926.7.18 <昨今來의 豪雨로 北部 浸水 六百戶>

75) 《朝鮮日報》1927.2.22 <小下水工事費豫算>

76) 《東亞日報》1924.3.23 <南北差別의 實例>

77) 雙S生, <大京城狂舞曲> 《別乾坤》 4-1, 1929.1, 76~79.

78) 《東亞日報》1924.3.24 <朝鮮人과 無關係한 편벽된 여러가지 시설>

79) <想像 바깥 세상 - 京城의 다섯 魔窟> 《別乾坤》 4-6, 1929.10,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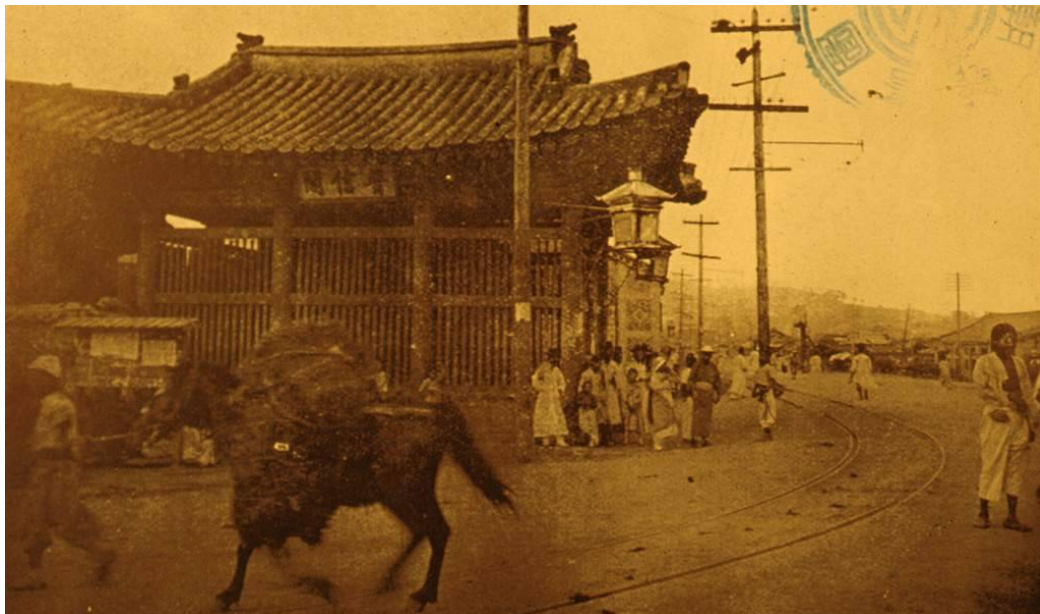
80) 洛江居士, <京城의 밤> 《新東亞》 2-8, 1932.8, 91~92.

잡한 곳이 되었다. 학교 교육에서도 차별양상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남촌의 일본인 학교는 학생 1명당 학교 기지가 11평반, 교실이 2평반인데 반해 북촌의 조선인 중학교는 각각 6평, 1평반에 불과하였다.⁸¹⁾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가 완공된 이후 북촌에도 부분적인 ‘토목사업’이 시작되었지만,⁸²⁾ 이 경우에도 개발 이익이 조선인에게 享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수익자 부담제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⁸³⁾

반면 일본인들은 本町通을 거닐면서 지배민족으로서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고, 초라하고 지저분한 鍾路 거리의 조선인들을 마음껏 멸시, 조롱할 수 있었다.

“本町通은 아름다운 거리, 변화한 골목,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사람들, 쇼윈도우, 좁은 공간, 전기 간판, 꽃집, 交番, 축음기의 멜로디, 라디오의 義太夫, 인력거, 깨끗하게 차린 藝妓, 개, 50전짜리 라이스카레, 사람들, 사람들, 이렇듯 조선의 銀座街의 행진곡은 연주되고 있다....本町通은 경성의 가장 변화한 일면이며 동시에 경성을 심볼하는 도회적 번영을 말해 주는 곳이다. 本町에 활기가 있는 때는 즉 대경성 전체에 활기가 찬 때이며, 本町이 시들어가는 때는 경성이 점차 잠들어감을 말해주는 것이다.”⁸⁴⁾

“本町은 경성 시가지의 한 귀퉁이에 있지만 어찌 그리 활기가 충일하며 화기가 충만한가. 전후좌우의 집은 모두 2, 3층으로 준비하여 종로처럼 낮은 집이 없다. 폭주하는 물화, 형형색색의 사람이 있고 그 화려찬란함은 기자의 두 눈을 당황케 하더라. 반면 종로는 한복판에 위치하면서도 대체로 조선 구식의 가옥으로, 큰 사람이 서면 천장이 닿을 정도이며 그 모습도 진부하고 조락되어 있다.”⁸⁵⁾



〈그림 12〉 1920년대의 普信閣

81) <外人의 勢力으로 觀한 朝鮮人京城> 《開闢》 48, 1924.6, 55.

82) 《東亞日報》 1925.12.13 <北部의 市區改正은 南部의 延長主義>

83) 《朝鮮日報》 1927.2.13 <都市計劃과 受益者負擔稅>

84) 南山町人, <大京城繁昌記 - 朝鮮의 銀座街 本町通りの卷> 《朝鮮公論》 17-1, 1929.1, 76~77.

85) 《每日申報》 1921.2.24 <市街地巡覽의 感想>



〈그림 13〉 1920년대의 本町

V. 朝鮮人の 京城 認識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경성의 도시 개조는 식민지 통치권력이 주도하였다. 시구개수사업이라는 이름의 가로 체계 개조, 각종 관청 건물 및 국책회사, 은행 사옥 등 대규모 근대 건축물의 축조, 朝鮮神宮 등 종교적·이데올로기적 건물의 축조, 무엇보다도 조선왕조시대 이래 조선인들에게 강렬한 이미지 요소로 각인되어 있던 전통 건조물의 파괴와 새로운 건조물을 통한 위압 등은 모두 권력의 직접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식민지화 이후 경성의 변모과정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조선인들은 일제 식민지 권력의 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식민지 권력의 폭압적 도시 개조에 대한 경성 조선인들의 반응은 우선 무력감과 설움이었다. 그들은 경복궁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가 ‘총독부 새 집 앞에서 모든 학대 갖은 구박을 다 받는다’⁸⁶⁾ 처지로 전락한 해태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었다. 총독부 신청사 건축과 함께 제 자리에서 쫓겨난 光化門도 ‘경성의 설움을 혼자 도맡아 가지고 사시사철 우는’⁸⁷⁾ 존재로서 경성 조선인의 심사를 대변하는 존재였다. 일본인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총독부 신청사에 대해 ‘全朝鮮民衆’의

86) 《朝鮮日報》 1925.9.15 <是非曲直은 몰라요 宮門 안에 隱遁生活>

87) 一記者, <2일 동안에 서울 구경 골고루 하는 법> 《別乾坤》 4-6, 1929.10, 61.

新廳舍가 되려고 찬사를 바쳤지만,⁸⁸⁾ 조선인들은 그 건물의 웅장함에 오히려 설움을 느꼈고 그 화려함에 참혹해 하고 쓸쓸해하였다.

“근년에 이르러 넘어가는 저녁별이 눈물에 젖은 옛 대궐에 비치고 북악에서 넘어오는 쓸쓸한 바람이 너의 낮을 스쳐 지나갈 때에 말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네(—해태 ; 필자) 모습은 참으로 쓸쓸하였드니라...너의 꼴을 보려고 대궐 안에 들어가니 너는 한편 모퉁이에 결박을 지은 채로 거적을 쓰인대로 참혹히 드러누웠더라. 그것을 본 흰옷 입은 사람의 가슴도 어찌 편안할 수가 있겠느냐!”⁸⁹⁾

대부분의 전각이 헐려나간 채 총독부 건물에 압도되어 버린 경복궁을 보면서 조선인들이 느낀 이 같은 감회는 경성부청에 압도된 慶運宮을 볼 때에도, 조선호텔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皇穹宇를 볼 때에도, 경성역사와 조선신궁에 좌우로 짓눌린 채 상공장려관을 비롯한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남대문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느낌은 곧바로 경성 전체에 대한 느낌으로 확대되어, ‘도로에 전차, 자동차가 달리고 3~4층 벽돌집이 생기고 좁던 길이 넓어졌어도 조선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⁹⁰⁾일 뿐 아니라 오히려 조선인은 그 근대화되는 도시에서 ‘슬픔’과 ‘적막감’만을 느껴야 했다.

“아! 금일의 서울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러한 슬픔과 적막을 느끼게 하는가. 시골 사람으로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적막함이 이 무슨 까닭인가. 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아! 나는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⁹¹⁾

물론 조선인들은 그 슬픔과 적막감의 원인을 알고 있었다. 북촌과 남촌의 관계는 식민지화 이후 1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극단적으로 역전되었다. 조선인들은 남촌에 압도된 북촌의 도시경관에서, 식민지 권력을 상징하는 육중한 근대적 건물에 위압된 옛 왕조의 상징물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았다. 제국주의 일본이 자랑하는 ‘신문명’이 ‘야만적’인 방식으로 조선의 오랜 문명을 능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 식민지 권력의 부당한 능멸에 대해 조선인들은 작은 목소리로, 극히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인들은 남대문 옆에 세련된 모습으로 우뚝 선 상품진열관을 찬미하는 대신에, 그것이 南大門에 ‘똥칠’을 한다고 비꼬았다.⁹²⁾ 조선인들은 수백 년 간 서울 종로의 상징물로 존속해 온 普信閣을 쓰레기터미 속에 방치해 두는 경성부 당국자들의 무신경과 무성의에 불만을 표시하였다.⁹³⁾ 조선인들은 박람회 열어 조선 풍물을 소개한답시고 ‘조선 사람의 흥꺼리는 모두 모아 보여주는’ 총독부 당국의 노골적인 조롱에 분

88) 宮崎生, <偉容漢城の空を壓する光化門の新政廳> 《朝鮮公論》 14-2, 1926.2

89) 《東亞日報》 1923.10.4 <景福宮>

90) 秋湖, <서울雜感> 《서울》 3호, 1920.2, 43.

91) 秋湖, <서울雜感> 《서울》 3호, 1920.2, 42.

92) “일부러 채색칠한 것 같이 덮여 있는 푸른 덩굴은 좋으나 이 옆에 무슨 진열관인지 높은 벽돌집과 더 높은 굴뚝을 세우게 하는 것은 이 문에 똥칠을 한 것일세.” —記者, <2일 동안에 서울 구경 골고루 하는 법> 《別乾坤》 4-6, 1929.10, 59.

93) “그까짓 丹青은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누가 내 옆에 있는 냄새 나는 공동변소와 너절한 광고판들이나 없이 하여 주고 그 대신으로 나의 이력을 기록한 게시판이나 하나 세워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松雀生, <오래된 병어리 종로 인경의 신세타령> 《別乾坤》 4-6, 1929.10, 81.

개하였다.⁹⁴⁾

경성 도시공간에 반영된 식민지 권력의 의도는 명백하였다. 그들은 경성 도시공간 위에 남아 있는 ‘조선적 잔재’들에 ‘야만성’의 딱지를 붙여 두고자 하였다. 중세 조선 건축의 백미였던 궁궐 들조차 초라하고 낡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경성에 관해, 경성 조선인에 관 해 묘사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은 한결같이 일본인의 관점에서 포착된 것이었다.⁹⁵⁾ 그들은 조선 인의 야만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함을 선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일본이 도시 공간을 변형하고,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역전시키는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고 야 만적이었다. 조선인들은 식민지 권력이 ‘일본인의 세력을 조장하고 조선인의 몰락을 직접 간접 으로 促急 하여 마지 않는 殘忍한 차별’⁹⁶⁾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럴 만큼 총독부·경성부의 차별은 ‘아주 터놓고 하는 식’이었다.⁹⁷⁾ 심지어 식민 통치를 긍정하고 그에 적 극 협조한 附日輩들조차 ‘京城의 南山은 맑고 北村은 어둡다’든지, ‘朝鮮은 잘 되었지만 朝鮮人은 잘 되지 못했다’⁹⁸⁾고 憤慨한 心思를 吐露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 권력의 차별과 조롱이 노골적인 만큼, 조선인들의 怨恨도 깊어갔다. ‘그 자들’에게는 良心의 가책도 기대할 수 없었다.⁹⁹⁾ 종로 인경(人定 조선시대 통행금지를 알리던 종)에게 怨恨의 나날이 계속되는 한, 조선인들의 怨恨의 나날도 계속되었고,¹⁰⁰⁾ 京城이라는 도시를 知覺할 때마다 조선인의 가슴 속에는 怨恨의 피가 끓어올랐다.¹⁰¹⁾ 그러나 原人과 結果가 混同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마련이다. 특히 옛 京城에 대한 기억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배경과 원인이 제대로 인지될 수 없었다. 서울 주민으로서 역사적 紐帶가 약했던 地方出身 주민들이나 젊은 世代들에게 그 같은 顛倒現狀은 더 빈번히 나타났다. 사실 北村 조선인들의 구성 자체가 급속히 변하고 있었다.¹⁰²⁾ 일본의 한국 강점 이후 구래의 서울 거주자들 중 다수는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외국으로 유랑하지 않으면 성밖이나 산자락 밑으로 이주해야 했다. 서울 ‘토박이’는 일부 新貴族(일본으로부터 爵位를 받은 귀족)과 소수 商賈輩 정도만 남았다. 그에 따라 京城 조선 인 사회의 중심이 元京城人으로부터 지방 출신 京城人에게로 넘어갔고,¹⁰³⁾ 그들에게 認知되는 경성은 경성 토박이들이 認知하는 경성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
- 94) “자네 또 朝鮮館이란 데 가 보았나?” “그는 못 보았어” “아니 참말 그 놈들이야말로 각정이 놈들이 데. 조선 사람의 흥꺼리는 모두 모았는데 그려 아이 창피해” 春坡, <서울구경 왔다가 잊어버리고 가는 것> 《別乾坤》 4-6, 1929.10, 130.
- 95) 조선시대의 실경 회화는 대부분 북에서 남을 바라보고 그린 것들이었지만, 일제 강점기의 사진이나 관광 안내도 등은 거꾸로 남산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것들 뿐이었다. 김한배, 2003 <앞 논문> 101.
- 96) 《東亞日報》 1924.3.23 <南北差別의 實例>
- 97) <外人의 勢力으로 觀한 朝鮮人京城> 《開闢》 48, 1924.6, 44.
- 98) 朴榮喆, 1929 《50年の回顧》, 721.
- 99) “일본인 시가를 중심으로 한 장충단공원이나 한양공원을 볼 때에 그 자들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 <京城雜話> 《開闢》 69, 1926.5, 79.
- 100) “종로 인경 오직 그에게는 怨恨의 날이 계속할 뿐이다. 그러나 한 해 한 번씩 그에게 가을 바람이 스칠 때마다 北村을 향하는 무리들에게 종로를 死守하라고 들리워준다.” 崔永秀, <漢陽秋聲> 《新東亞》 2-10, 1932.10, 36.
- 101) “떨망하여 가는 이 경성, 이 도시, 우리는 이것을 知覺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怨恨의 피가 끓는도 다!” 《東亞日報》 1923.3.7
- 102) 小春, <예로 보고 지금으로 본 서울 中心勢力의 流動> 《開闢》 48, 1924.6, 57.
- 103) 鮮于全, <余의 京城感和 希望 - 京城人과 地方人> 《開闢》 48, 1924.6, 62.

“중로 네거리 우리 동포들의 상점지대로부터 북촌 일대의 행랭그렁하며 비인듯 하며 어둡침침한 그것에 비하여 모든 사람의 눈을 현혹케 하여 마지 않는 그 광경에 우리 정신까지도 전부 거기에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동포들이 한 번 이곳을 구경하고 이 땅을 밟을 때에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 이 놀람과 찬란이 드디어 부러움과 憧憬의 표적으로 변하여 그네들의 머리 속에다 깊고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¹⁰⁴⁾

경성 주민의 일부가 조선인을 차별하는 도시행정과 조선 문화를 모욕하는 공간이용 행태에怨恨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일부는 조선적인 것과 바로 대비되는 세련되고 화려한 제국주의 일본의 문화를 憧憬하고 그 문화를 향유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VI. 맺음말

중세 도시 서울이 近代都市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1896년경부터였지만,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 1900년대 말, 일본인이 서울 空間의 支配權을 장악한 이후의 일이었다. 그에 따라 京城의 近代化 過程에는 植民地라는 現實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日本人 지배자들은 때로는 부주의하거나 무성의하게, 때로는 露骨의인 惡意를 갖고 京城 都市空間을 변화시켜 갔다. 그들은 경성에서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권위를 지워 버리고자 하였다. 왕조 권력을 상징하던 모든 건조물이 그 잔영만 남긴 채 모욕의 대상이 되었고,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南村에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도시 행정과 도시계획 활동이 모두 극심한 민족차별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 모든 行爲는 京城 都市空間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고 京城 住民의 意識에 強烈한 이미지를 남겼다. 린치가指摘한 바 都市 이미지를 규정하는 모든 要因들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朝鮮人들의 文化나 歷史的 共同經驗과 관련된 복잡한 聯想作用을 거쳐, 朝鮮人들의 自意識과 日本人 支配者들에 대한 態度에 영향을 미쳤다.

朝鮮人들은 景福宮, 昌慶宮, 德壽宮 등 滅亡한 王朝의 象徵을 보면서 慘酷·설움·悲哀를 느꼈고, 그 옆에 들어선 日本人들의 새 建築物을 보면서도 그 雄壯함에 感歎하면서도 그 無神經과 抑壓的 空間活用に 不滿과 憤怒를 表出하였다. 식민지 권력은 朝鮮人과 朝鮮人의 거리, 朝鮮人의 거주지와 朝鮮人의 文化 모두를 노골적으로 차별했고 조롱했으며, 멸시했다. 식민지 권력의 차별과 멸시가 노골적인 만큼 朝鮮人들은 대개 자신들의 空間, 자신들의 삶이 초라하고 궁색하게 된 원인을 명료히 인식할 수 있었다. 식민지 권력은 京城에 자신의 권위와 文明성을 각인시키고자 했지만, 그 과정은 조선인들에게 忿怒와 怨恨만을 심어 주었다.

분명 朝鮮人, 北村, 鍾路와 日本人, 南村, 本町 사이에는 ‘不潔-清潔’, ‘초라함-雄壯함’, ‘沒落-繁榮’, ‘陰濕-活氣’, ‘野蠻-文明’의 懸隔한 差異가 있었다. 京城의 都市空間은 그 差異를 可視化하고 그를 京城의 住民들 - 朝鮮人과 日本人을 막론하고 - 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想起시켰다. 北村의 더럽고 위험한 골목을 걸으면서 朝鮮人들이 日本人 支配者들에게 怨恨을 품는 것은 당

104) 鄭秀日, <진고개> 《別乾坤》 4-6, 1929.10, 47.

연한 일이었다. 차별에 대한 분노는 조선인 내부의 계층적 차이를 뛰어 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구조와 콘트라스트는 직관적인 이미지 요소로 다가서게 마련이다. 경성이 식민지 도시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경성 조선인들이 품었던 분노와 원한은 이윽고 다른 감성으로 轉移되기 시작하였다. 北村의 주민 구성이 크게 달라진 것도 이 轉移過程을 가속화하였다. 대한제국기까지 경성 주민은 주로 국가 권력에 의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성 주민의 절대 다수는 官僚와 軍兵, 市廛商人, 賁人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가 권력의 所在가 바뀌면서, 국가가 베푸는 특혜의 대상도 바뀌었다. 식민지 권력이 부여하는 특권은 일본인들에게 집중되었고, 일본인들은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권력을 누렸다. 조선인이 그 틈에 끼일 여지는 거의 없었다. 경성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분노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경성을 떠나는 사이에, 地方 富者들과 留學生들, 新文物에 기꺼이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성의 새 주인이 되었다.

경성 공간이 변했을 뿐 아니라 그 공간을 認知하는 사람들 역시 변했다. 식민지 권력의 의도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경성의 새 주민들은 일본인 거리, 일본인 가옥, 일본인에게서 ‘文明’과 ‘現代’를 읽었다. 그들은 ‘문명’을 배척하고 그럼으로써 ‘문명’으로부터 소외되는 길을 택하려 하지 않았다.¹⁰⁵⁾ 그들은 과거의 서울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일본인들이 조선인에 대해 만들어낸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에 기반하여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문명’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고, 그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였다. 식민 권력에 대한 怨恨이 1920년대 민족주의 운동을 뒷받침한 대중적 감수성이었다면, 제국주의 문화에 대한 憧憬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민족개량주의를 부양한 대중적 감수성이었다.¹⁰⁶⁾ 1920년대 京城의 都市空間은 그렇게 朝鮮人들에게 抵抗과 順應・同化의 이율배반적인 對應態度를 가르치는 ‘空間-機械’로 機能하였던 것이다.

105) 1920~30년대에 본격 출현한 ‘유행’ 역시 ‘文明’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대중 심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김진송, 《앞의 책》 76 참조.

106) 경성의 도시공간이 ‘안정화’되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 문학작품 등에서는 민족성이 탈각된 도시적 감수성을 주로 다루었다. 1930년대 언론 통제의 강화가 그 같은 변화를 강제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만들어내는 대중적 감수성이기도 하였다. 강심호 외, 2003 <일제 식민지 치하 경성부민의 도시적 감수성 형성과정 연구 -193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소비 문화의 성립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21 146 참조.

[비평문]

모리야마 시게노리

본 연구는, 식민지기 경성(서울)의 도시화의 모습 및 여기에 대해서 당시 한국인이 가졌던 인상 내지는 이미지를 분석한 것이다.

우선 권두언에서는, 조선시대 서울에는 풍부한 이미지가 있었으나, 식민통치에 의해 극단적으로 역전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30년대의 도시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근현대성에의 주목)에 대한 비판과, 민족성에 주목하는 본연구의 시각이 제시되었으며, 자료상의 제약에서 1920년대를 대상으로 하고, 1920년대가 도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하 전체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장에서 강조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82년 이후 서울의 일본인 거주지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다양한 특권과 편의에 의해 이들이 남춘 중심으로 확대하고, 또 북촌이 조선인 거주지였기 때문에, 민족별 거주지 분리현상이 나타나, 이것이 식민지 권력의 차별적 행정과 어울려, 지배자·피지배자, 부자·빈자로서 표상되었다.

둘째, 남촌에 새로운 건물이 집중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 철거·이전·축소 등의 조치에 따라서 <불품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구조선과 신조선의 대비 뿐 만 아니라, <조선적인 모든 것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가 되었다.>

셋째, 도시기능 정비가 일본인 거주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거주지는 <먼지가 떠돌고 냄새가 나는 더러운 상태로 방치>되었으나, 일본인은 <지배민족으로서의 여유를 느끼며>한국인을 멸시·조롱할 수 있었다.

넷째, 조선인은 도시의 변화를 <슬퍼하고>, <비참해 하고>, <적막감> 등을 느끼고, 또 불만, 분개, 원한 등을 나타내며, 서울에서 이주하였고, 마침내 서울 한국인 사회의 중심은 지방출신에게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요약과 간단한 전망을 서술한 후, <1920년대 京城 도시공간은, 그와 같이 조선인의 저항과 순응·동화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공간-기계》로서 기능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식민지기에 있어서 사회의 존재 속에서, 특히 도시 서울이 한국인에게 준 이미지에 주목하여, 그것을 약간 문학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당시 한국인의 감정을 재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 이하 문제점을 요약해보자.

첫째로, 도시 서울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한국인이 갖는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보인다. 우선, 다양한 도시 기능을 반드시 체계적·총합적으로 논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술된 도시 기능이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오해를 부른다. 또, 남촌에 도시기능 정비가 집중된 이유를 식민지 권력의 의도로 돌리고 있으나, 식민지 권력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남촌에 살게 된 것이 원래 조선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이 지역을 개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입지 조건이 좋은 토지를 한국인에게서 빼앗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그 편이 한국인에게 플러스 이미지를 주게 될 것인가. 즉 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 변화만을 기술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야기하면, 입지 조건이 좋은 곳, 내지는 근대적인 도시기능이 정비된 쪽이 좋다는, 가치관이 내포되어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근대적인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역으로 민족에게는 전통적인 가치 추구라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다니사키준이치로(谷崎潤一郎)가 《음영예찬》을 저술하였다. 결국 총체적으로 가치관이 한정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문학적인 기술 방법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국인이 실제로 어떠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슬픔> <비참함> 등의 형용사를 사용되지만, 그 기술에서 자료의 인용이 자의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또, 결론부분에서 새로운 도시에 대한 주민의 대응이 부차적·보조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 만일, 대응이 종래의 도시 이미지를 뒤집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뒤집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1930년대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1920년대를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단지 본 연구가 주장하는 도시 이미지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비판받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연구의 시야도 좁고, 식민지기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즉 都市研究史 상에서 자리매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최대의 문제점은, 시각·방법·사실에 대한 기술 등, 한정적이고 좁은 인상을 받았으며, 시사점이 별로 없었다. 첫째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양하고 복잡하며 풍부한 역사적 현실의 극히 일부만이 사실로써 취급되었을 뿐이며, 둘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논리적인 연관성에 대한 고찰도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 나아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하 도시의 비교, 도시와 농촌의 관계 등, 도시를 자리매김하고, 서울과 다른 도시와의 차이점 등, 다양한 시각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반복해서 말하자면, 근대적인 도시 기능을 좋아하는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도시 이미지가 연구 대상이라 하여도, 이상의 여러 점에서 고려가 부족한 경우, 특히 일본인에게 설득력 있는 연구라는 인상을 줄 수 없으며, 결점만 지적당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역사연구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분석이 약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집필자 답변]

모리야마씨의 여러 가지 비평에 대해 간단히 답하기로 한다.

첫째, 논문에서 서술된 도시 기능이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글은 도시 기능 전체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도시 거주자, 또는 도시 방문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도시 경관, 즉 이미지 요소들을 다룬 것이다. 경험적, 이론적으로 이미지 요소로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린치의 5가지 요소를 선택하고, 그 각각이 어떻게 당대 권력 - 1920년대까지는 주로 식민지 지배권력 - 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식민지 도시 주민이 그를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 기능의 선택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식민지 권력의 도시 개발·정비·관리가 남촌에 집중된 것은 본래 남촌이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評者が 지적한대로 일본인들이 ‘남촌’을 정비하는 대신에 ‘북촌’을 빼앗는 길을 택했을 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장소와 인간의 관계가 갖는 상대적 안정성((또는 固定性)을 무시하는 것이다. 1910년 이전에 이미 재경 일본인 사회는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또 식민지 권력이 경성에서 수행한 도시 개발·정비·관리는 결코 불균형을 시정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던 북촌을 ‘열등한 지역’으로 급전직하시킬 만큼 급격하고 전면적인 것이었다.

셋째, 식민지 권력이 만들어 놓은 도시 경관을 평가함에 있어 ‘근대적인 것이 모두 좋은 것’이라는 한정적 가치관에 입각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식민지 지배권력의 ‘차별적이고 악의적인’ 공간 개조이고, 공간의 근대성 문제는 부차적인 관심대상이었을 뿐이다. ‘근대적인 것이 모두 좋은 것’이라는 사고는 식민지 지배권력이 유포하고자 했던 ‘한정적 가치관’이며, 그 점에서 식민지 권력의 공간 개조가 ‘근대성의 확산’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 때문에 評者の 비평이 대상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넷째, 당시 ‘어느 정도의 한국인’이, ‘실제로 어떠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그 때문에 필자의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1920년대’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 같은 ‘언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한국인’이 어떤 느낌을 토로했는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불만을 토로한 한국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필자는 평자와 심각한 인식상의 차이를 느낀다. 서

문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필자가 1920년대를 대상으로 한 것은,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간이 그나마 한국인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의 日記나 感想文類의 일차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던 점은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에 대해서는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인다.

다섯째, 시각·방법·사실에 대한 기술이 한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인과 관계의 설정이 불충분하며 도시사 전반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여 ‘일본인에게 설득력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도시 기능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농 관계의 변화, 경성과 다른 도시의 비교 등은 애초부터 본 연구의 중심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 문제는 논문 한편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일본인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은 대체로 수긍하지만, 한가지만은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1995년 한국 정부는 ‘역사적’ 건물인 ‘구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근대의 합리적 관점에서는 실재하는 ‘문화재’적 건물을 헐고 이미 사라진 건물을 ‘모형상태로’ 복원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 건물의 건축미나 구조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표현하고 있는 ‘인상’과 ‘이미지’를 본 것이다. 일본인들에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사상적·문화적·정서적으로 ‘불구상태’에 놓이게 된 한국인들의 ‘의식상태’를 이해시키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본인 스스로도 이 문제에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